

臨床 驗方

徐錫培

- 目 次 -



- | | |
|----------|-----------|
| 1 序言 | 7. 急慢性 肝炎 |
| 2 項強과 斜頸 | 8 糖尿病 |
| 3 爪甲反張 · | 9. 前立腺炎 |
| 4. 鼻塞 鼻淵 | 10. 盗汗 |
| 5 口鹹症 | 11 虎列刺 |
| 6. 遺精 | |

1. 序言

醫藥人으로서 臨床을 하다보면 누구나 特別한 體驗을 한 例가 間或 있으리라 믿으며過去 정보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였을 때는 그 정보가 數世紀를 거쳐 세상에 빛을 본 例가 허다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의약정보가 수시로 발표되고 교환할 여러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 우리가 지금 발간하고 있는 學術誌도 醫學 정보교환에 근본 취지가 있는 이상 우리 韓藥人도 거의가 한방에 종사한지가 수십년이 넘으신 분이 많으며 각기 좋은 體驗例의 素材들이 다양하리라 본다 筆者가 본지에 발표한 몇가지 治驗例들이本人 創作例이냐 先賢들의 模倣例이냐 구분하기 전에 분명히 밝히고자 한 것은 현대文明社會에서 새로 발생된 痘原들은 몰라도 과거로부터 傳來된 痘들은 先賢들의 原典範疇에서 벗어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基本方에 加와 減 또는 適地適所의 取捨選擇에서 치료경험을 발표한 것이지 특별히 獨創的인 것은 없다고 본다.

2. 項強 및 頸項斜 治驗記

多年間 醫藥에 종사하다보면 목이 뻣뻣하다거나 목이 한편으로 돌아가 正視하기 곤란한 증상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여기 項強症의 一例만 거론하여도 그 원인이 여러가지기에 어느 方劑가 項強症에 제일 有效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 원인과 증상에 맞는 方을 선택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우선 項強症의 원인부터 대략적으로 규명해 보자

項強과 痰瘡은 同狀異名, 異名同狀같지만 原因과 증상 치료가 분명 다르다 痰瘡은 대개 急症에서 오고, 증상도 激烈하고 치료도 急治를 요한다 傷寒症 热氣에서 오는 痰瘡, 破傷風에서 오는 痰瘡, 腦炎에서 오는 痰瘡, 中風에서 오는 痰瘡 등이 있는데 項強은 대개 慢性的이다

筆者가 여기 소개하는 項強과 頸項斜증은 四十代 婦人으로 肥形도 아니었고 瘦形도 아닌 보통 체질이었다. 初期에는 목이 뻣뻣하던 것이 차차 甚해져 頸項이 左편으로 斜去한 것이 半年이 경과되었다 뚜렷한 因果를 확증할만한 病理를 발견못하여 필자가 項強斜去에 愛用한 加味抑肝湯을 60貼 連服시켰다 體驗例 중에는 가장 長기간 體驗예이고 그 外에 六味地黃湯에 羌活, 獨活을 加하여(이는 腎水不足에 인한 脊椎 不利에서 오는 項強症) 치유한例, 大秦艽湯(中風으로 因한 項強症)으로 有效한例, 回首散으로 治癒한例도 간혹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 加味抑肝湯 - 釣鉤藤 白朮 防風 秦艽 葛根 天花粉 各8g 當歸 川芎 羌活 各6g 柴胡 甘草 各4g

3. 爪甲病治驗記

本病은 주로 手爪甲이 윤기가 전혀 없고 或爪甲이 뒤집어지고 脫去되는 病으로서 외관상 보기 좋지 않다

醫學入門 臟腑論에 보면 爪甲은 足少陽膽과 직접 연관된 부위로서 膽經의 营養이 풍족하면 爪甲이 윤택하고 영양이 부족하면 爪甲이 초췌하여진다고 하였으며 膽經風熱이 있으면 역시 爪甲에 이상이 있다고 하였다.

大秦艽湯은 中風半身不遂와 高血壓에 有效한 方으로서 膽經風熱 또는 영양부족에도 適應된 方이라 생각하고 手指爪甲病에 응용하게 되었는데 반응이 좋았다

手指爪甲病 體驗例를 보면 50세 以上 婦人們이었는데 痘이 稀少하고 先賢들의 記錄에도 별로 찾아 볼 수 없어 무척 방황하던차 前述한 論理에 의거 大秦艽湯이 착안되어 40貼을 服用하여 治療시킨후 本方으로 本業에 종사한 이래 五名을 治療시켰다 痘도稀少하고 생명에 관계된 痘도 아니고 병의 발생도 長期間 시간을 요하면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자연 무관심하기 쉽다

• 大秦艽湯 - 秦艽 石膏 各6g 熟地黃 生地黃 當歸 白芍藥 川芎 白朮 茯苓 防風 白芷 羌活 獨活 黃芩 甘草 各4g 細辛 3g

× 附記 手指頭나 足指頭가 蛇頭와 같이 肿瘡이 생기고 疼痛이 심한 희한한 병이 있는데 蜈蚣을 焙乾하여 作末한 후 猪膽汁으로 이겨 환부에 눌러 바른다.

4. 鼻淵鼻塞 治驗記

鼻疾患의 종류가 여러가지며 각기 治療방법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어느 治療방법이 확정적이다 결론지을 수 없고 적재적소에 取捨選擇의 應用의 妙만 잘 활용하면 우리의 임무는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선 鼻疾患의 대략적인 分類를 살펴보면 蓄膿症은 鼻涕가 膿濁하고 코에서 惡臭가 나는 痘이고, 鼻塞(鼻厚性鼻炎)症은 鼻孔이 狹小하여 코가 막히는 증이고 鼻淵症은 鼻腔內에 콧물이 留滯되어 或左 或右 或流或滯의 症이고, 鼻瘡症은 콧속이 乾燥되면서 부스럼이 생기는 증이고, 不聞香臭症은 냄새를 맡지 못하는 증이고, 鼻痔는 콧속에 異物이 솟아나는 증인데, 일반 學生이나 痢은층에 많은 鼻塞, 鼻淵, 蓄膿症 등, 그중에서도 鼻淵塞症으로 고민하는 분이 많아 여러 文獻을 參考하여 方劑를 應用하여 많은 效果를 보았기에 發表하고자 한다

鼻淵症의 원인을 자세히 설명하자면 本病 역시 急性과 慢性으로서 急性은 거의가 外感風熱로 基因하지만 慢性은 急性이 慢性으로 轉換되면 콧물이 鼻腔內에 停滯되면서 鼻塞과 流出을 反復한다

鼻塞症이 장기간 持續되면 頭腦가 明皙치 못하여 기분이 상쾌치 못하고 瞬發力이나 記憶力이 저하되어 정신노동을 요하는 사람에게는 기분나쁜 痘이다.

문제는 鼻氣만 疏通되면 해결되는 痘인데 鼻孔이 약간 狹小하더라도 氣(숨쉬는 氣를 칭함)만 疏通되면 痘邪는 차츰 消去된다 그런 點에 着眼하여 益氣劑의 名方인 補中益氣湯 加味方을 應用하였다

▣ 임상 협방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留念하여야 할 核心은 勿論 基本 補中益氣湯에 있지만 適用의 妙는 加味에 있다. 다음 治驗例 前立腺炎의 例에도 여러분들이 있지만 補中益氣湯에 加味方을 사용하여 탁월한 效果를 본 것을 想起하면 그 加味如何가 一은 上竅를 疏通케 하고 一은 下竅를 疏通케 하는 妙理를 발견할 수 있다.

藥量에 따라 重量을 일률적으로 加할 수 있는데 本人이 사용한 方대로라면

- 加味補中益氣湯 - 黃芪 12g 人蔘 白朮 麥門冬 甘草 各6g 當歸 陳皮 白芷 各4g 柴胡 升麻 莢蕡 各3g

痰涕가 盛하면 白斂 貝母를 加하면 有效하고 頭疼이 有할 때는 蔓荊子 細辛을 五分씩 加하고 耳聾이 隨伴하면 補中益氣湯 加味方에 木通 蔓荊子를 加하여 쓰되 以上은 모두 慢性病이기에 長期間 投藥하여야만 治療된다는 것을 念頭해 두어야 한다.

5. 口鹹症 治驗記

五十年代 中年男子로서 平常時 愛酒家이며 健康과 體格이 보통이었다 一個月前부터 口鹹症으로 이상한 病에 罹患되거나 않았는지 筆者에게 治療를 의뢰하여 이는 腎虛와 津液이 足少陰腎經을 따라 위로 遊溢된 소치라 생각하고 六味地黃湯 本方에 五味子 烏賊骨 各一錢半을 加하여 二十貼 服用하고 完治되었다

- 加味六味地黃湯 - 熟地黃 15g 山藥 山茱萸 各8g 牡丹皮 烏賊骨 五味子 澤瀉 白茯苓 各6g

이런 準例로 口辛症에는 瀉白散에 麥門冬 黃芩을 加하면 有效하고, 口鹹症에는 胃酸過多等은 別途 治法이 있지만 肝經熱로 因한 病에는 小柴胡湯에 黃連 吳茱萸 草龍膽 神曲을 加하면 有效하고, 口苦 亦是 心熱 또는 其他 內熱等으로 발생하니 症狀에 따른 投藥은 各自의 몫이다

6. 遺精治驗記

二十代후반 未婚男子와 四十代 초반 既婚男子로서 數年前부터 夢思遺精이 있을 때도 있고, 不夢이 遺精이 되는 수도 있고, 때로는 小便에 精液이 流出될 때도 있다하여 그간 많은 약을 服用하였으나 별로 效果를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文獻에 의해 痘名부터 살펴보면 思夢이 精泄者를 夢精 또는 夢泄이라 하고 不夢이 精泄者를 遺精이라고 하는데, 原因들은 下焦相火가 脊髓에 交感하여 오는 遺精, 畫思

夜夢으로 靑壯年층의 精游溢로 오는 遺精, 下焦虛弱에서 不守元으로 오는 遺精 등이 있는데 수회간 遺精을 反復하다보면 下元은 더욱 虛弱하여지고 몸도 전반적으로 衰弱하여지니 放置하여 둘 수 없다.

桂枝加龍骨牡蠣湯 秘元煎等을 二三劑씩 投藥하여 보았으나 別로 效果를 보지 못하여 扁鵲心書에 依한 灸法을 사용하여 治癒시킨 두例가 있었다.

灸法이라야 遺精을 治癒시킨다는 주장이 아니라 湯제로 如意치 않을 때는 灸法도 특수效果가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筆者가 運用하고 있는 灸法은 先賢들의 灸法에 依해 關元穴을 每日 十壯式 十日乃至十五日을 灸한다.

7. 急慢性肝炎治療驗方

肝은 脇肋間의 中焦에 位置하고 있어 罷患되면 上下疏通이 위치상 더디어 鬱症이 나타나기 쉽다

流行性이나 病因性 알콜中毒 等으로 肝炎에 罷患되면 中腹이 膨滿感을 느끼고 脇肋이 略通하고 小便是 반드시 黃하고 食慾이 減退되며 疲勞가 隨伴되고 甚하면 實際로 腹部가 膨滿되고 黃疸이 올 수도 있다

肝은 東方木이지만 脾胃와 共히 中焦에 位置하고 있어 木鬱이 甚則 木克土의 원리에 의해 그 害가 平土의 脾胃에 미친다 그래서 先賢들도 治木에 先實脾土라 하였으니 이런 기준에 의해 健脾胃제인 人蔘養胃湯과 治肝炎劑인 加味小柴胡湯을 合方하여 投與하여 본즉 特異한 效力이 있어 名命을 加味小柴胡合養胃湯이라 하였다.

- 加味柴胡養胃湯 - 柴胡 12g 蒼朮 茵陳蒿 各8g 陳皮 厚朴 黃芩 半夏 茯苓 人蔘 各6g 草果 甘草 各2g 生薑 大棗 各6g

(1) 方藥解說 . 病名 그대로 肝炎이라 하였으니 柴胡 黃芩 茵陳이 解熱 消炎 利尿通하고 白朮 茯苓 半夏 人蔘이 健脾胃하고 陳皮 厚朴 青皮 木香이 氣鬱通하며 生薑 大棗 甘草 等이 和脾和肝하니 肝炎에 最善方이라 할 수 있다. 만약 酒客家 肝炎에는 葛根 12g 白扁豆 6g을 加하면 더욱 좋다

(2) 投藥後 反應 · 四十代初 急性肝炎 初期환자에게 20貼 服用하고 完快되었는데 그 後 계속된 過酒로 재발되어 그때는 40貼 服用하고 完快되었다. 其他 慢性환자는 3劑 내지 4劑 連服한 後 有效하였으며 肝硬化나 肝癌 환자에 투여하여 보았는데 별로 반응

■ 임상 험방

이 없었다.

* 本方에 加 葛根 白扁豆하면 酒客家에 良方이라 할 수 있다

8. 糖尿患者에게 有效方

糖尿病의 원인이나 증후군들을 각종 문헌이나 경험담에 의해 수없이 들어온例라 이 점은 略하고, 投與方들을 보면 六味地黃湯에 加味方 또는 八味地黃湯 加味生津飲等 또는 여러 方例들이 많은데 筆者의 견해로는 이런 方들은 水氣나 津液부족에서 오는 消渴症에 有效한 方들이고 소위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腺臟에서 生成되는 인슐린부족에서 오는 糖尿病에는 별로 큰 도움이 못되었다는 것을 體驗을 통해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腎臟과 연관시켜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고안하여 보았는데 다른 方劑보다 월등히 효과가 좋았으며 初期환자는 數名을 치유시켰음을 밝히고자 한다.

方藥을 考案한 동기에 대해 記述하자면 책 한권을 옮길정도이기에 가장 要略하여 해석하자면 먼저 腎臟 인슐린 生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方이 없을까 苦心끝에 升麻葛根湯과 白朮散을 착안하고 다음 血糖血燥를 조절보조하는 四物湯, 清心제인 清心連子飲을, 糖尿患者는 小便을 자주 보기에 山藥, 山茱萸, 巴戟 등으로 頻尿를 억제하는 등 이런 方劑를 複合하여 필요치 않은 것은 빼고 필요한 것은 加하여 投藥하여 본즉 合病까지 오지 않은 환자에게는 효능이 좋았다 命名은 필자 자의로 加味升麻白朮湯이라 하였다

• 加味升麻白朮湯 - 白朮 山藥 各12g 葛根 8g 升麻 白芍藥 當歸 蓮子肉 人蔘 麥門冬 各6g 生地黃 山茱萸 巴戟天 茯苓 天花粉 川芎 各 4g 甘草 2g

投藥後 反應 此方의 투여후 반응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初期환자는 2~3제면 호전되었고 오래된 만성환자로서 合病症에 이른 환자는 長久간 투약한 경험이 없어 이점 아쉬워하고 있다

9. 前立腺炎과 加味補中益氣湯

前立腺炎에 대한 치료방법을 여러 문헌과 各者の 경험과 體質 증상 발병시기 등에 따라 각기 驗方을 제시하였는데 여기 補中益氣湯에 加味하여 前立腺炎으로 因한 小便不利 或 不通 등에 특수한 효과가 있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本病은 大多數가 年老하면서 오는 病인데 요약하면 尿道가 狹小하면 小便보기가 몹

시 어려움을 나타내는 病이다. 古典小便論에 보면 小便是 氣化爲出이라 하였다.

기도가 强하면 小便보기가 쉽고 年老하면서 氣道가 弱해지거나, 一般人도 脫氣 夏暑病後에 下焦陽氣가 허약해지면 小便보기가 몹시 곤란하여지는 것을 감안하면 小便의 利, 不利는 氣力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므로 前立腺炎 역시 炎症에 주력하는 것보다 氣化爲出 즉 益氣에 주력하는 것도 치료의 大法이다 그런 착안에서 益氣제의 名方인 補中益氣湯에 利尿제인 茯苓, 澤瀉, 車前子 등을 加하여 投與하여보면 틀림없이 效果가 있다 단 小便이 전혀 不通하는 急治를 요할 때는 急則治基標의 원칙에 따라 순수利尿제 4~5貼 복용후 즉시 加味補中益氣湯을 투여하여 보면 外科的 수술을 하지 않고도 好轉되는 예가 많다.

- 加味補中益氣湯 - 黃芪 12g 人蔘 白朮 白茯苓 澤瀉 車前子 甘草 各6g 當歸 陳皮 各4g 柴胡 升麻 烏藥 各3g

投藥後 反應 前立腺炎으로 인하여 小便보기가 몹시 困難하여 때로는 不通지경에 이르러 호스로 病院에서 빼낼정도의 急性환자를 越婢加朮湯 3~4貼 또는 체력에 따라 加味八正散 4~5貼 服用시켜 小便이 通한 後 此方을 투여하여 洋方수술하지 않고 호전된例가 多數 있었다

10. 一般的 盜汗症

盜汗症엔 小兒盜汗 病後盜汗 陰虛盜汗 등 여러 形態의 盜汗이 있는데 여기 소개한 盜汗方은 小兒盜汗을 除外한 一般的으로 허약체질 일체의 盜汗에 有效한 方으로 選用 할만 하다

衛者는 護衛腠理하여 汗이 不出이라 하였으니 衛氣가 虛弱하여지면 汗出함으로 補 . 衛氣의 黃芪建中湯과 陰虛盜汗하니 合四物湯 즉 雙和湯이다

盜은 去脫이라 하였으니 여기에 龍骨과 牡礪粉을 加하면 盜汗의 聖藥이다

- 加味雙和湯 - 白芍藥 16g 龍骨 牡礪粉 各12g 黃芪 當歸 熟地黃 各8g 川芎 桂皮 甘草 各6g 生薑 大棗 各8g

× 咳嗽가 심하면 五味子 麥門冬을 加하면 盜汗과 咳嗽에 함께 도움이 된다

投藥後 反應 20貼~40貼 이상은 投藥하지 않았으며 거의가 그정도에서 好轉되었다 病歷 40년의 一婦人の 盜汗에 本藥뿐 아니라 도한에 좋다는 여러종의 약을 써보았으나 그분은 끝내 治癒되지 않고 他處로 옮겨 많은 藥을 服用하였으나 별로 效力を 보

지 못하였다. 筆者는 지금도 그분의 盗汗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분은 盗汗으로 苦生은 하였지만 81세까지 장수한 편이다

11. 虎列刺(怪疾)를 治癒시킨 方

오래전에 故인이 되었지만 韓方의 大方家인 李文玉先生께서 解放직후 1946年 虎列刺가 全南 求禮君 光義面에 蔓延하여 많은 生命을 앗아갔을 때의 일이다.

그 甚하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吐瀉에 脱水症은 순식간에 초래되고 사람은 죽어 가니 그분께서는 어떤 方法으로 저 심한 吐瀉를 억제할 수 없을까 苦心끝에 그때만 하여도 鶯粟殼을 마음대로 投藥할 수 있어 우선 最澁劑로 吐瀉를 抑止시켜 脱水는 막아야 한다고 食中毒에 해당한 平胃散方에 鶯粟殼 5錢식을 加하여 2~3貼식 服用케 하였는데 그 藥을 服用한 환자는 다 生命을 救하였으며 鶯粟殼 한가마니가 거의 소모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鶯粟殼이 麻藥에 묶여 전혀 사용할 수 없지만 당국의 감시하에 사용할 수만 있다면 危急한 환자에 適應症이 많으리라 믿는다.

- 加味平胃散 - 鶯粟殼 20g 蒼朮 8g 陳皮 4g 厚朴 3g 甘草 2g 薑三 粧二

(學術委員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天佑堂韓藥房 ☎ 0688-363-2609)